

국 어

1.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뉴턴, 슬로바키아, 도이칠란드, 링거
- ② 도스토옙스키, 플레시, 로브스터, 버저
- ③ 콘사이즈, 파일, 리더십, 케첩
- ④ 코즈모폴리턴, 스프링클러, 콘셉트, 카펫
- ⑤ 앙코르, 타깃, 심포지움, 플루트

2. 다음 중 발음 표기가 옳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① 늑고 [늑꼬], 은혜 [은혜], 앓는 [알른]
- ② 맑지 [막찌], 의견란 [의:결란], 발이랑 [반니랑]
- ③ 반창고 [반창고], 얹지 [얹:찌], 계시다 [계:시다]
- ④ 쌓네 [싼네], 밟다 [밟:따], 이글이글 [이글이글]
- ⑤ 똥네 [똥네], 값있는 [가빈는], 망막염 [망망님]

3. 다음 중 문장의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이 비가 그치면 날씨가 더워질 듯하다.
- ② 그는 고향에 가더라도 큰집에 들르지 않는다.
- ③ 내일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습니다.
- ④ 형은 동생이 한 잘못을 감싸 주었습니다.
- ⑤ 어떤 일이 생겨도 내일은 꼭 완성하겠습니다.

4.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쿵더쿵, 허우대, 선두리, 똥똥이
- ② 풀소, 적이, 생일빔, 고인돌
- ③ 맨송맨송, 뜨문뜨문, 깔보다, 틈틈히
- ④ 눈썹, 발뼉꿈치, 행네기, 마방집
- ⑤ 깍쟁이, 구두주걱, 봉죽, 새치름하다

5. 다음의 특성을 지닌 어휘 관계만으로 묶인 것은?

- 각각의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다.
- 한쪽을 부정하면 곧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이 된다.
-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 ① 남성-여성, 알다-모르다, 빠르다-느리다
- ② 높다-낮다, 밝다-어둡다, 가다-오다
- ③ 살다-죽다, 참-거짓, 있다-없다
- ④ 아래-위, 부모-자식, 주다-받다
- ⑤ 좋다-싫다, 깨끗하다-더럽다, 맛다-틀리다

6.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유형의 잘못을 범한 문장은?

국어는 앞뒤 문맥을 통하여 성분의 호응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한 성분 생략이 자유롭다. 문제는 이러한 성분 생략이 문맥 호응상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이따금 성분 생략이 아닌 성분 실종으로 변질되어 비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 구조상 의미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성분 생략은 국어 문장 구조의 간결성, 함축성, 경제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성분 간에 호응을 어긋나게 하면 성분 실종이 되므로 성분 생략과 성분 실종은 구별해야 한다.

- ① 학문을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 ②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 ③ 토의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 ④ 다솜이의 여름방학 숙제로 제출한 그림은 특이했다.
- ⑤ 재원이와 철현이는 지난달에 여행을 다녀왔다.

7. 다음 설명을 반영한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하는데,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접두사는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일부 접두사의 경우 관형사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접두사는 결합이 제한적인 반면에 관형사는 결합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 다르다. 접두사는 붙여 쓰고 관형사는 띄어 쓴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일상생활에서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① 누구나가 새옷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조금씩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이 찾아왔다.
- ③ 거기에 옷돈을 주고라도 살 만한 물건이 있는가?
- ④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만큼 먹어라.
- ⑤ 아영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배, 귤등이다.

8.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동일한 단어 형성법으로 구성된 단어들로만 묶인 것은?

그 짜입새가 단일한 단어를 단일어(simple word)라 하고, 복합적인 단어를 복합어(complex word)라 한다. 복합어는 다시 어휘 의미를 강하게 띠는 요소끼리 결합한 합성어(compound word)와 어휘 의미를 가진 요소에 접두사와 접미사와 같이 형식 의미를 갖는 요소가 결합한 파생어(derived word)로 나눌 수 있다.

- ① 몹시, 새빨갳다, 높푸르다, 돌아가시다
- ② 먹이, 노리게, 찌개, 검푸르다
- ③ 잡아먹다, 지우개, 놀이, 참깨
- ④ 휘두르다, 기와집, 참답다, 슬기롭다
- ⑤ 군식구, 끝내, 정답다, 애호박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풀이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잘 짓는 자는 아마 방법을 잘 알 것이다. 비유컨대 글자는 군사요, 글 뜻은 장수요, 제목이란 적국이요, 고사(故事) 인용이란 전쟁터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요, 글자를 엮어서 구절을 만들고 구절을 모아서 문장을 이루는 것은 대오를 이루어 진을 치는 것과 같다. 운율에 맞추어 읊고 멋진 표현으로 빛을 내는 것은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과 같으며, 문구 앞뒤의 조율이란 봉화요, 비유란 유격이요, 억양 반복이란 맞붙어 싸워 서로 죽이는 것이요, 주제를 소화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먼저 성벽에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것이요, 함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란 늑은이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요, 여운을 남기는 것이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 ㉠ 옛날의 책이나 일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
- ㉡ 같은 의미라도 말을 잘 다듬어 표현하는 것
- ㉢ 내용을 잘 간과하여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 ㉣ 주제를 드러내어 읽는이에게 여운을 남기는 것
- ㉤ 앞뒤의 논리가 조화를 이루어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1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우리 민족사를 일별하여 문화부흥의 중대한 전환기를 찾으려면 대개 세 시기를 들 수가 있으니, 통일신라와 세종성대와 갑오경장이 그것이다. (㉠) 삼국시대의 불교의 전래라든지 여말의 송유학(宋儒學)의 수입이며 영조 이후 서학·북학의 섭취를 비롯한 군소의 전환기가 일대의 문운을 율흥(蔚興)시킨 바 여러 번 있었다 해도, 그는 실상 이 3대 전환기의 바탕을 이루는 역사적 작은 기복이요, 그 뚜렷한 분수령은 아무래도 앞에 든 세 시기에다 조정(措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 세 시기는 한결같이 국민 정신 발흥의 정점을 이룬 시기요, 또 다 같이 우리 민족의 어문 운동사에 획기적인 빛을 나타낸 시기이다. (㉢) 어문 운동의 획기적인 대두가 국민 정신 발흥의 시기에 일치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사를 주는 바 있다.

- | | | |
|----------------------|---|---|
| ㉠ | ㉡ | ㉢ |
| ① 그런데 - 물론 - 따라서 | | |
| ② 물론 - 다시 말하면 - 그러므로 | | |
| ③ 그러나 - 즉 - 이와 같이 | | |
| ④ 물론 - 그런데 - 이와 같이 | | |
| ⑤ 그런데 - 즉 - 따라서 | | |

11. 다음 중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이제 늘보난 세간 전답 다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며 제 부모 제사를 지내어도 제물은 아니 작만하고 ㉠대전으로 노코 지내난대 편 갑이면 편 갑이라, 과실 갑이면 과실 갑이라 각각 써서 버려 놔코 제사를 ㉡철상 후에 하난 말이, “이번 제사에도 아니 쓰노라 아니 쓰노라 하엿건만 황초 갑 오 풀은 지정무처일세.” 하난 텃하의 몫술 놓이, 일일은 생각하니 홍보에 가속을 내 여쭙치면 양식도 만이 었고 ㉢용처도 덜할지라. 저의 부부 의론하고 홍보를 불너 일은 말이, “형데라 하난 것은 어려서난 갖치 살되 실가를 갖춘 후난 각기 생애하야 사난 것이 썩썩한 법이니 너난 처자를 다리고 나가 살나.” 홍보 째잡 놀나 울며 왈, “형데난 슈죽 갖흐니 우리 단 두 형데 ㉣각산하야 살면 돈목지의 업스리니, 형장은 다시 생각하옵소서.”

- | | | | |
|---------------|---|---|---|
| ㉠ | ㉡ | ㉢ | ㉣ |
| ① 代錢 撤床 用處 各産 | | | |
| ② 垵田 徹狀 庸處 各算 | | | |
| ③ 代錢 撤床 用處 各散 | | | |
| ④ 臺前 徹床 庸處 各算 | | | |
| ⑤ 垵田 撤狀 用處 各散 | | | |

12.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 저서는 저자의 해박함을 방증하는 역작이다.
그 논리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해 보십시오.
- ㉡ 식당 앞에 ‘안주 일체’라는 문구가 보였다.
면회 시간 외에 출입을 일절 금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 ㉣ 사랑과 동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언어생활의 혼돈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은 자제하자.
- ㉤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굳게 결심했다.
지긋이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신사의 중후함이 보기 좋다.

13. 다음 중 어휘 사용의 측면에서 옳은 문장으로만 묶인 것은?

ㄱ.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 무슨 사달이 나기는 날 것 같다.
 ㄴ. 우리나라 토종 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ㄷ. 경기 침체로 빌라와 연립주택의 경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ㄹ.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남을 도와왔던 화제의 장본인을 소개하겠습니다.

- ① 없음
- ② ㄱ
- ③ ㄱ, ㄴ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14. 다음의 「관동별곡」을 읽고 작품의 순서를 배열할 때, 옳게 배열된 것은?

(가)강호에 병이 깊피 뉘님의 누엇더니
관동 팔부 위에 방편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땅극하다.

(나)회양 네 일흠이 마초야 7 특식골
급당유 풍츠를 고터 아니 불게이고
영둥이 무사 호고 시절이 삼월인 제
화천 시내길히 풍악으로 버더 이다.

(다)쇼양강 너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고신거국에 바 밭독 하도 할싸
동스 7함 게오 새와 북관당의 올라호니
삼각산 데일봉이 호 막면 비리로다.

(라)궁왕 대궐 터희 오작이 지지피니
천고홍망을 아나 다 물이 나다.

(마)연츄문 드리드라 경회 남문 바라보며
하직고 물너나니 옥질이 알포 쳤다
평구역 7 울글 라 후슈로 도라드니
섬강은 어디메요 티악이 여기로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다) - (나) - (마) - (라)
- ③ (가) - (다) - (라) - (마) - (나)
- ④ (가) - (마) - (나) - (다) - (라)
- ⑤ (가) - (마) - (다) - (라) - (나)

15. 다음은 국어의 부정(否定)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른바 부정소라고 불리는 ㉠부정 부사나 부정 서술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밖에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부정의 뜻을 가지는 어휘를 이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더욱이 우리말에는 ㉣부정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정소를 사용하였더라도 의미상으로는 긍정인 경우도 있다.

- ① ㉠: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 ② ㉡: 이번 계획은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 ③ ㉢: 나는 그녀의 마음을 잘 모른다.
- ④ ㉣: 제가 어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⑤ ㉤: 그가 이번 일을 그렇게 못 하지는 않았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일찍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단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마침 주변에 있던 별 한 마리가 윙윙거리며 날아와서는 머리를 쳐박고 단술 맛을 보는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계속하더니 단술 독에 거의 빠질 지경이었다. 내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손을 내저어 쫓았더니 별은 쫓기어 날아갔다. 그러나 별은 날아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끝내 날개가 젖어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차마 술을 버리고 날아가지 않아 얼마 후 술독에 빠져 죽고 말았다.

아! 별은 미물일 뿐이다. 미물이 어찌 그리도 술을 좋아하다가 끝내 제 몸을 술독에 빠뜨려 죽는 지경에 이른단 말인가? 처음에 내가 손을 내저어 쫓았을 때 날아갔더라면 진실로 ㉠날개가 젖는 화(禍)는 없었을 것이다. 날개가 젖었을 때 깨닫고 날아갔더라면 또한 어찌 ㉡술독에 빠져 죽는 화가 있었겠는가? 처음에는 날아가지 않았고, 중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빠져 죽고 말았으니, 슬프다!

나 또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 별의 일을 살펴서 나의 경계할 거울을 삼노라.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은 욕심을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을 능히 절제하지 못하여 그 본연의 마음을 잃게 되고, 마침내는 그 본성과 목숨까지 잃는 데에 이르게 되나니, 어찌 유독 술만이 그러할 뿐이리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여 ㉣간직하노니, 내가 ㉤대야나 그릇, 안식, 지팡이를 대할 때마다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16.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季布一諾
- ② 以一警百
- ③ 遼東之豕
- ④ 泣斬馬謖
- ⑤ 前車可鑑

17. 다음에서 한자어만 제시한 것은?

- ① a
- ② a, c
- ③ c
- ④ c, d
- ⑤ d,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 어귀에 ㉠약국이 하나 있다. 몇 년 사이에 주인이 세 번쯤 바뀌었는데, 이번에 간판을 건 사람은 꽤 오래 하고 있다. 어떤 일인지 먼저와는 달리, 약국 안 의자에는 동네 사람들이 늘 모여 앉아 있곤 한다. 지나다 보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더분한 인상의 여주인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약국 규모도 점차 늘어가는 듯하다.

그 자리에 처음 ㉡약국 간판을 건 사람은 중년 여자였다. 혼자 살고 있다는 그녀는 느지막하게 약국의 문을 열었다가 저녁에는 일찌감치 닫고는 하였다. 가끔 둘러 보면, 입고 있는 가운은 술기가 너저분해 보이고, 약장 안도 제대로 정돈돼 있지 않아서 왠지 어수선했다. 지나는 말로 이사할 생각이냐고 하면, 그저 웃기만 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음이 안 갔던지, 이 약국을 지나 한참 내려가야 하는 곳으로 약을 사러 가고는 하였다. 그러더니 어느 날, 어수선했던 약국은 문을 닫았다.

오래가지 않아서 새로운 이름을 걸고 ㉢약국의 문이 다시 열렸다. 주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듯싶은 자매였다. 그들은 늘 흰 가운을 단정하게 입었고, 약국 안도 깔끔하게 정돈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 고전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약국의 문은 다시 내려졌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선뜻 발을 들여놓기에 주춤거리는 분위기였던 모양이다.

닫혀진 약국의 간판 한쪽이 처진 채 계절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약국 간판이 반듯하게 다시 걸렸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안으로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는 것 같았다. ㉣약국 안에 놓인 긴 의자는 비어 있는 날이 드물었다. 어느 때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대추나무집 안 노인이 앉아 있기도 하고, 때마다 낮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그 약국 여주인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 시내에서부터 머리가 아파 집으로 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다. 반갑게 맞아 주는 그녀에게 두통약을 달라고 했더니,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면서 찬 보리차를 꺼내 한 컵 따라 준다. 그러면서 되도록 약은 먹지 말라고 한다. 생각지 않은 처방에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약국을 나와 집으로 오는데, 더위 속에서 한 줄기 소나기를 만난 듯 심신이 상쾌해졌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그녀와 허물없는 이웃이 되었다.

외출을 하거나 산책을 나갈 때면 그 ㉤약국을 지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유리문 안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녀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약만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굶은일, 기쁜 일들을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그녀가 전문 상담역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이웃의 일을 자신의 일인 듯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다.

약을 팔려고 애쓰지 않는 약사. 그녀는 약으로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약국은 날로 번창하는 것 같다.

18. ㉠~㉤ 중 지시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19. 다음 단락을 논리적으로 의미가 잘 통하도록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일반적으로 도서는 인류의 가장 우수한 지성인, 예지자들의 두뇌의 총화를 축적한 저장고라 하겠다. 그 속에는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문학, 미술, 음악 등 학술과 예술에 관한 것은 물론, 기타 취미와 오락 등 인간 생활에 관계된 것으로 없는 것이 거의 없다.

(나)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그 방면의 서적 중에서 우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용과 차례 등에 의하여 선택해서 읽어 볼 일이다. 이와 같이 하기를 수습 권 하면, 자연히 그 양부(良否)를 판단하여 가려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에 능통한 선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편이 가장 손쉽고 편리하지만, 이것은 어느 경우나 가능한 일은 아니요, 또 타당한 일도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다.

(라) 학문의 연구는 이와 같이 하여 점점 깊이 들어가고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노력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코 아낄 것이 아니다. 매사가 정성과 노력을 안 들이고 공(空)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노력을 들이면 그 노력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 노력의 효과는 언젠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거두어지게 마련이다.

(마) 요는 이와 같이 많은 도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요구하는 서적을 찾아내며, 또 어떻게 하면 그 종류 중에서 가장 우량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문제된다. 사람도 많으면 그중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듯이, 서적도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는 양서도 있고 악서도 있다. 그리하여 그 많은 도서 중에서 양서를 골라 내는 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 ① (가) - (다) - (라) - (마) - (나)
- ② (가) - (마) - (나) - (다) - (라)
- ③ (가) - (마) - (다) - (나) - (라)
- ④ (나) - (다) - (가) - (마) - (라)
- ⑤ (나) - (라) - (마) - (다) - (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신뢰질은 네 개의 엮으로 나뉘는 뿐 아니라 좌우 반구로도 나뉜다. 우반구는 신체의 왼쪽 근육을 통제하며 좌반구는 오른쪽 근육을 통제한다. 그러므로 한쪽 뇌가 손상되면 반대쪽 신체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 좌우 양쪽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각각이 정해진 기능들을 통제하는 신경조직을 갖고 있다. 인간의 경우 보통 뇌의 좌뇌가 언어를 관장한다. 사실 오른손잡이 중에 95퍼센트에서 좌뇌가 언어를 관장한다. 왼손잡이 60~70퍼센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95퍼센트의 오른손잡이들이 좌뇌를 많이 사용하고 60~70퍼센트의 왼손잡이들도 좌뇌를 많이 사용한다.
- (나)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친구가 회사 야유회에서 벌인 토론에서 당신 편을 들어주었다. 모임을 마치고 함께 나오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 “사랑한다. 오늘 편들어 줘서 정말 고마워.” 여기서 좌뇌만 기능한다면 당신은 곤란해질 수 있다. 당신과 친구가 모두 미혼일 때는 더더욱 곤란하다. 하지만 친구의 좌뇌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우뇌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분위기와 의미를 알아챈다.
- (다) 좌뇌와 우뇌는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두꺼운 띠를 활용하여 서로 연락을 하며 이들 신경섬유 다발을 뇌돌보(뇌량)라고 한다. 뇌돌보를 좌뇌와 우뇌라는 아주 강력한 컴퓨터들을 연결해 주는 거대한 케이블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좌우 뇌를 모두 사용한다. 좌뇌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말을 해독한다. 말하자면 좌뇌는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법원 속기사다. 우뇌는 번역가다. 감정을 관장하는 우뇌는 어조, 암시, 심층적인 의미 등을 인식한다. 결국 좌뇌와 우뇌가 합쳐져서 우리는 말 자체뿐만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의도까지 이해한다.
- (라) 전적으로 좌뇌가 우세하거나 전적으로 우뇌가 우세한 그런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주로 쓰는 우세한 손, 눈, 발, 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한쪽 뇌가 다른 뇌보다 많이 쓰인다.
- (마) 좌뇌의 중요한 기능에는 논리와 수학이 포함된다. 반면에 우측 뇌는 전통적으로 공간 지각 능력, 음악, 시각적 상상, 안면 인식 등을 관장한다.
- (바)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한쪽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좌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정보가 감정을 관장하는 오른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때로 좌뇌가 행동에 대한 통제를 고집하고 우뇌의 지각까지 감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어조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가 받아들여 처리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차갑고 딱딱한 논리로 환원된다. 다행인 것은 처음 만남에서 상대를 바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오른쪽 눈을 새로 만난 사람에게 정조준하면 당신의 좌뇌가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 (사) 하지만 비록 그것이 선입견이 없고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첫 만남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뇌를 무시한다는 것은 직감과 어쩌면 중요할지도 모르는 위험 신호까지 무시한다는 의미다.

23. (가)~(사)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가) - (다) - (나) - (라) - (마) - (바) - (사)
- ② (가) - (다) - (라) - (바) - (나) - (마) - (사)
- ③ (가) - (마) - (다) - (나) - (라) - (바) - (사)
- ④ (라) - (가) - (사) - (나) - (바) - (마) - (다)
- ⑤ (라) - (마) - (나) - (바) - (사) - (가) - (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생각해 보면 기막힌 노릇이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도 얼마나 서러운 일이 많은가? 시름 많고 설움 많은 세상인데 돈까지 주면서 극장에 들어앉아 울다니... 허나 이것을 우는 재미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는 것이 왜 재미있느냐고 묻는다면 나도 ‘글쎄...’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서럽게 우는 것은 가장 구박받던 며느리라는 것을 알면 우는 것이 왜 재미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나) 물론 여성 관객이 주를 이뤘고 혹평하는 사람들은 ‘고무신 관객 상대의 최루탄식 영화’라고 얕잡아 보기도 했지만, 그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 파렴치한 이야기거나 반윤리적인 재미가 아닌 다음에야 영화라는 것이, 보고 재미있으면 그만이지 그 나머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영화관에 가서 심각하고 오묘한 진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치게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영화는 재미가 우선이라는 점은 긴말이 필요 없고, 이 영화는 그 재미를 많이 선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 (다) 1960년대 얘기지만 슬픈 얘기로 톡톡히 재미를 본 영화가 있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 이 영화를 상영한 극장에는 사람이 미어터졌고 압표 장수들은 한뼘을 단단히 잡았다. 얼마나 영화 관객이 많이 몰렸는지, <속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나오고 이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 제3탄>이 나오고 그랬다. 속편들도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고 들었다.
- (라) 그런데 가관인 것은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멀쩡한 사람들이 두 눈이 텅텅 부어서 극장문을 나선다. 심지어는 극장에서 나와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우는 사람까지도 있었다. 나도 속되기는 마찬가지여서 그 영화를 구경했다. 그리고 눈물개나 뿌렸다. 아마 5분 간격으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다. 훌쩍거리다 못해 엉엉 소리 내어 우는 소리도 극장 안에서 들을 수가 있었다. 나야 물론 근엄하게 우느라고 애를 썼지만, 손수건에다 코를 많이 풀어야 했다.
- (마) 사람들은 본디 울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울고 싶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원인이야 어디 있든지, 그것이 생래적(生來的)인 것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든지 간에 울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술주정으로 우는 사람이 꽤 많은 것도 평소에는 억제되었던 그 욕구의 빗장이 풀려서 그러는 것이리라. 욕구의 충족은 언제나 재미가 있고 쾌감을 동반한다.

24. (가)~(마)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나) - (다) - (가) - (마) - (라)
- ② (다) - (나) - (라) - (가) - (마)
- ③ (다) - (라) - (가) - (나) - (마)
- ④ (마) - (가) - (나) - (라) - (다)
- ⑤ (마) - (나) - (다) - (라) - (가)

25. 다음 제시문의 밑줄 친 어휘 중 맥락상 같은 의미로 묶인 것은?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덩속 빠져 먹든 못허고 으르릉 어형 넘노난 듯, 단산 봉황이 죽실을 물고 오동 속에 넘노난 듯,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해운 간에 넘노난 듯, 구곡 청학이 난초를 물고 송백 간의 넘노난 듯, “내 사랑 내 알뜰 내 간간이지야. 어허 등등 니가 내 사랑 이지야. 목락무변수여천에 창해같이 깊은 사랑, 삼오신정 달 밝은 밤 무산천봉 완월 사랑, 생전 사랑이 이러허니 사후 기약이 없을소냐? 너는 죽어 꽃이 되되 벽도홍 삼춘화가 되고, 나는 죽어 범나비 되어 춘삼월 호시절에 니 꽃송이를 내가 덩속 안고 너울 너울춤 추게 되면 니가 나인 줄 알려무나.” “화노(花老)허면 짐불래(蝶不來)라, 나비 새 꽃 찾아가니 꽃 되기 내사 싫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 마치가 되어 밤이면 이십팔수, 낮이면 삼십삼천, 그저 탕……탕 치거드면, 니가 나인 줄 알려무나.” “인경 되기도 내사 싫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 ‘지’, 따 ‘곤’, 그늘 ‘음’, 아내 ‘처’, 계집 ‘여’ 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하늘 ‘천’, 하늘 ‘건’, 날 ‘일’, 별 ‘양’, 지아비 ‘부’, 기특 ‘기’, 사나이 ‘남’, 아들 ‘자’ 자, 종을 ‘호’ 자로만 돌아를 보자.”

- ① 늙은 범, 인경 마치
- ② 살찐 암캐, 범나비
- ③ 흑룡, 난초
- ④ 봉황, 인경
- ⑤ 청학, 꽃

헌 법

1. 공무원입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입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 ②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입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입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④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입권을 침해한다.
- ⑤ 순경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입권을 침해한다.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옥외집회를 늦어도 집회가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므로 집회의 자유를 방자한 폭력행위나 불법행위 등은 제재될 수 있다.
- ④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⑤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시위 참가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중심절차로 규정할 경우 이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된다.
- ② 법무부가 내린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재심은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재심청구권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와는 다르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된다.

- ④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동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 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뜻한다.
- ③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④ 헌법은 의회기 중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택하고 있으나 의회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 ⑤ 국회의 회의절차에 관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보수 인상을 방식에 의하여 공무원연금액을 조정 하던 것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연 금액을 조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연금제정의 파탄 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하려는 공익의 가치보다 구 법에 대한 퇴직연금수급자의 신뢰가치가 크므로 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 례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 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ㄷ.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 례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ㄹ.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 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6. 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 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 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 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 ②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 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에서 제외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동일한 취지로 소집 된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③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 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 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법률조항 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⑤ 학교법인은 일반 사법인과 달리 공공성이 요구되고, 공익법인이 나 사회복지법인 등과는 그 용역의 성격이나 수요층의 범위, 대 체수단에 대한 접근용이성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 방이사 선임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7.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사건의 수입에 관하여 앞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구 「변호사법」 조항은 '법 률사건'이나 '앞선' 등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문언상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 칩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 해)의 '기타 방법으로' 부분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태양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아니하여 법률 문언 자체로 구성요 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범감정을 가진 사람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더라도 그 내용이 일 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③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에 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에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액수(시세차익)로 파악하는 데 어 려움이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교부 또는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법」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은 의료 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 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8.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 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 는데,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직업의 자유는 행복추구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 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ㄴ. 휴먼권과 협연권은 서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 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고 보아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 칩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ㄷ.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 모두가 최대 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 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ㄹ. 노동조합의 조직유지·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법률 조항은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하는 것이다.

- ① ㄱ(X), ㄴ(O), ㄷ(X), ㄹ(O)
- ② ㄱ(X), ㄴ(X), ㄷ(O), ㄹ(O)
- ③ ㄱ(O), ㄴ(O), ㄷ(O), ㄹ(O)
- ④ ㄱ(O), ㄴ(O), ㄷ(O), ㄹ(X)
- ⑤ ㄱ(O), ㄴ(X), ㄷ(O), ㄹ(X)

9. 헌법의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료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ㄴ.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

ㄷ.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사인간의 사적 자치를 침해하고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

ㄹ.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① ㄱ(O), ㄴ(O), ㄷ(X), ㄹ(O)
- ② ㄱ(X), ㄴ(O), ㄷ(X), ㄹ(O)
- ③ ㄱ(O), ㄴ(X), ㄷ(X), ㄹ(O)
- ④ ㄱ(O), ㄴ(X), ㄷ(O), ㄹ(O)
- ⑤ ㄱ(X), ㄴ(O), ㄷ(O), ㄹ(X)

1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모든 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② 헌법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③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의자에게 강제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1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이고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되더라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관계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교육감 소속 교육장 등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내지 그 신청사무는 징계사무의 일부로서 대통령,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위임사무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⑤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12. 헌법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ㄷ.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ㄹ.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두어야 하며,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ㅂ.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며,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ㄷ, ㄹ
- ③ ㄴ, ㄷ, ㅂ
- ④ ㄷ, ㄹ, ㅁ
- ⑤ ㄹ, ㅁ, ㅂ

13. 선거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행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공동체의 유지에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공동체구성원들과 똑같은 권리를 모두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통선거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 ②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③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은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 서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선원들이 모사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하는 경우, 선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결과에 대한 비밀이 노출될 위험성을 스스로 용인하고 투표에 임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선거권 내지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을 조화적으로 해석할 때, 이를 두고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⑤ 직접선거는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획득도 선거권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14. 헌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1948년)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각각 선거하였다.
- ② 제2차 개정헌법(1954년)에서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헌법기관으로 법관추천회의를 두고, 모든 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다.
-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부처에서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였으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였다.

15. 국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는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주기간과 주소에 관계없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④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16.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심판대상이 되는 권한쟁의는 헌법상의 분쟁만이 아니라 법률상의 분쟁을 포함한다.
- ②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 ④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17.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 경우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 ② 국회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의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8.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제7차 개정헌법(1972년)과 제8차 개정헌법(1980년)도 현행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규정하였다.
- ③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하여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
- ④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한다.
- 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건의권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권력분립질서와 조화되기 어렵다.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이나 단체는 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
- ②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내린 군 내의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는 군지휘조직 내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장병에 대한 직접적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③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④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20.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분변론에 의한다.
- ② 전원재판부는 중독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지정재판부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 이후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된 헌법소원은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특정한 지역민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명령적 위임에 따르지 아니한다.
- ② 회기 중 현행법으로 구급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의결절주수의 의결로써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
-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 ④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진 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 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내용을 인쇄한 문건을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사당 내의 기자실에서 배포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발언한 경우에 발언문건의 사전배포행위는 직무상 부수행위에 포함되므로 면책된다.

22.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정조사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시행한다.
- ②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 ③ 국정조사의 주체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다.
- ④ 국정감사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걸쳐서 시행한다.
- ⑤ 감사대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경 제 학

1. 졸업식장에서 사용되는 꽃다발에 대한 수요는 $P=100-2Q$, 공급은 $P=50+3Q$ 라 한다. 빈곤층을 돕기 위해 시당국은 꽃 한 다발당 20원을 소비세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 때 소비자잉여 감소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은 각각 얼마인가? (단, P 는 꽃다발의 시장가격, Q 는 꽃다발의 수를 나타냄)
 - ① (48, 72)
 - ② (72, 48)
 - ③ (64, 96)
 - ④ (96, 64)
 - ⑤ (88, 68)

2. 해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경제의 균형에서 총투자자는 국민저축(national saving)과 같고, 국민저축은 민간저축(private saving)과 정부저축(public sav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소득이 480이고 소비지출이 350, 정부지출이 100, 조세가 80일 때 사적저축은?
 - ① 30
 - ② 50
 - ③ 80
 - ④ 100
 - ⑤ 130

3. 당첨될 경우 16, 그렇지 못할 경우 0의 상금을 얻을 수 있는 복권이 있다. 이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그렇지 못할 확률은 동일하다. 이 복권을 구입한 효미의 효용함수는 $u(W) = \sqrt{W}$ 라고 한다. 이 경우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ce)와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은 각각 얼마인가? (단, u 는 효미의 효용, W 는 상금 규모임)
 - ① (2, 2)
 - ② (2, 4)
 - ③ (4, 4)
 - ④ (4, 2)
 - ⑤ (8, 8)

4. 장기 총공급곡선이 $Y=2,000$ 에서 수직이고, 단기 총공급곡선은 $P=1$ 에서 수평이다. 총수요곡선은 $Y=2M/P$ 이고 $M=1,000$ 이다. 최초에 장기균형 상태였던 국민경제가 일시적 공급충격을 받아 단기 총공급곡선이 $P=2$ 로 이동하였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Y 는 국민소득, P 는 물가, M 은 통화량을 나타냄)

<보 기>

ㄱ. 국민경제의 최초 장기균형은 $(P: Y) = (1: 2,000)$ 이다.
 ㄴ. 공급충격으로 단기균형은 $(P: Y) = (2: 1,000)$ 으로 이동한다.
 ㄷ. 공급충격이 발생한 후 중앙은행이 새로운 단기균형에서의 국민소득을 장기균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통화량은 $M=1,000$ 이 되어야 한다.
 ㄹ. 총수요곡선과 장기 총공급곡선이 변하지 않았다면 공급충격 후에 장기균형은 $(P: Y) = (1: 2,000)$ 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5. 소비자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차별곡선이 L자형이면 가격효과와 소득효과는 동일하다.
 - ② 기펜재는 열등재이지만 모든 열등재가 기펜재는 아니다.
 - ③ 재화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무차별곡선지도는 변하지 않는다.
 - ④ 열등재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기 때문이다.
 - ⑤ 소득소비곡선(ICC)이 우상향하는 직선이면 두 재화 모두 정상재이다.

 6.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하여 확장금융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인 이 나라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국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
 ㄴ. 이자율 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에 따르면, 국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ㄷ. 국제수지 중에서 무역수지보다 자본수지의 개선을 가져온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4. 해외부문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경제에서 소비 함수는 $C = 100 + 0.8(1-t)Y$, 민간투자는 180, 정부지출은 180이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200으로 늘린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C 는 소비, t 는 조세율, Y 는 국민소득임)

- ① 조세율이 0이면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는다.
- ② 조세율이 0이면 국민소득은 20만큼 증가한다.
- ③ 조세율이 0이면 국민소득은 50만큼 증가한다.
- ④ 조세율이 0.25이면 국민소득은 40만큼 증가한다.
- ⑤ 조세율이 0.25이면 국민소득은 50만큼 증가한다.

15. 휴대폰을 생산하는 기업 A의 시장수요곡선은 $P = 15,000 - Q$ 이다. 기업 A는 휴대폰 액정화면을 생산하는 액정부문과 휴대폰을 조립하는 조립부문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액정부문의 비용함수는 $C_L = 2.5Q_L^2$ 이며, 조립부문의 비용함수는 $C_H = 1000Q_H$ 이다. 액정부문은 기업 A가 정하는 내부거래가격으로 액정화면을 조립부문에 공급하며,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액정화면 생산량(Q_L)을 결정한다. 기업 A의 액정화면 최적 내부거래가격은? (단, P 는 휴대폰 가격, Q 는 휴대폰 생산량, C_L 은 액정화면 생산비용, C_H 는 조립비용, Q_H 는 휴대폰 조립량으로서, $Q = Q_L = Q_H$ 임)

- ① 2,000
- ② 4,000
- ③ 6,000
- ④ 8,000
- ⑤ 10,000

16. A국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2%이고, B국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5%라고 하자. 현재 A국과 B국 통화의 현물시장(spot exchange rate) 환율이 1,000이다. 무위험 이자율평가설(covered interest rate parity)에 따른다면 6개월 만기 선물시장(forward exchange rate)의 환율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환율은 B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A국 화폐액으로 정의됨)

- ① 950
- ② 970
- ③ 1,020
- ④ 1,030
- ⑤ 1,050

17. 어느 복점시장에서 두 기업 A, B가 경쟁하고 있다. 불황 기간 중에 각 기업은 생산량 감소와 생산량 유지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각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기업 A의 이윤율, 두 번째 숫자는 기업 B의 이윤을 나타냄)

	기업 B의 전략	생산량 감소	생산량 유지
기업 A의 전략	생산량 감소	(100, 100)	(50, 80)
	생산량 유지	(80, 50)	(70, 70)

- ① 두 기업 모두 생산량을 유지하는 전략조합이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 ②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에서 두 기업은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
- ③ 기업 B의 전략과 상관없이 기업 A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④ 우월전략 균형은 1개가 존재한다.
- ⑤ 내쉬 균형은 1개가 존재한다.

18.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3%로 유지하는 실질이자율 타게팅(targeting) 규칙을 엄격하게 따른다. 이 실질이자율 수준에서 국민경제는 장기와 단기 균형상태에 있었다고 하자. 장기공급곡선을 제외하고는 수직이거나 수평이지 않은 일반적인 IS, LM, AS, AD 곡선을 가진 국민경제를 가정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수요 증가 충격을 받는 경우, LM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 ② 화폐수요 증가 충격을 받는 경우, 단기에서 산출은 변하지 않는다.
- ③ 소비증가 충격을 받는 경우,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④ 소비증가 충격을 받는 경우, 단기에서 산출은 증가한다.
- ⑤ 단기 총공급 감소 충격을 받는 경우, LM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19. 노동 수요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빠르게 체감할수록 노동 수요는 임금 탄력적이 된다.

ㄴ.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ㄷ.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이 증가하면 노동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현재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0.05이고, 인구증가율이 0.01, 감가상각률이 0.01, 기술진보율은 0.02, 저축률은 0.1이라고 하자. 솔로우(Solow)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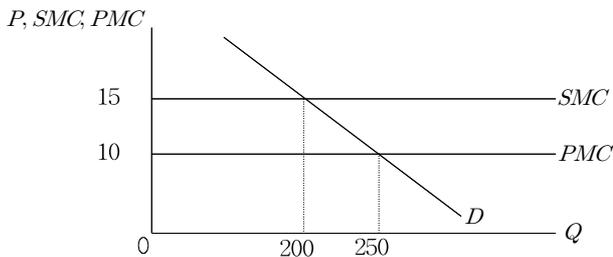
- ① 황금률(Golden Rule)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1인당 자본량을 증가시키면 1인당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③ 저축률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1인당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④ 1인당 소득 증가율은 0이다.
- ⑤ 총소득 증가율은 0.03이다.

21. 두 기업 A와 B만이 존재하는 X재 시장에서 기업 A의 비용함수는 $TC^A(Q^A) = 20Q^A$ 이며, 기업 B의 비용함수는 $TC^B(Q^B) = 20Q^B$ 이다. 또한, X재 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P(Q) = 80 - Q$ 이다. 두 기업이 카르텔(cartel)을 형성하여 시장수요량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다.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기업 A의 최적 생산량과 이윤은 각각 얼마인가? (단, TC^A 는 기업 A의 총비용, TC^B 는 기업 B의 총비용, Q^A 는 기업 A의 X재 생산량, Q^B 는 기업 B의 X재 생산량, P 는 X재 가격, $Q = Q^A + Q^B$)
- ① (15, 450)
 - ② (30, 900)
 - ③ (15, 900)
 - ④ (30, 450)
 - ⑤ (30, 50)

22.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먼델-토빈(Mundell-Tobin) 효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한다.
- ② 공급충격이 발생한 경우 인플레이션 타게팅(targeting) 정책은 산출을 불안정하게 한다.
- ③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정책이 기대되었는가에 의존한다.
- ④ 합리적 기대가설에 따르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
- ⑤ 명목임금이 하방경직적일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23. 알루미늄 시장의 사적 한계비용곡선(PMC)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SMC), 수요곡선(D)이 다음과 같다. 이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 는 알루미늄 가격, Q 는 알루미늄 생산량임)



- ①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200이다.
- ②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에서의 총외부비용은 1,250이다.
- ③ 정부개입이 없는 경우 균형 생산량은 250이다.
- ④ 1단위당 5의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량은 200이 된다.
- ⑤ 1단위당 5의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24. 소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ㄱ.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지출이 증가하므로 소비함수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 ㄴ. 쿠즈네츠(Kuznets)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장기에는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 ㄷ. 상대소득가설은 소비의 가역성과 소비의 상호의존성을 가정한다.
- ㄹ.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소득 이상으로 증가할 때,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모두 옳지 않다.

25. 서희와 문희가 옥수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고기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시간)

	옥수수	고기
서희	18	10
문희	16	12

서희는 하루에 6시간, 문희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할 수 있으며, 두 재화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는 노동뿐이다. 두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교환비율은 얼마인가?

- ① 고기 1단위당 옥수수 5/9~3/4단위
- ② 고기 1단위당 옥수수 4/3~9/5단위
- ③ 고기 1단위당 옥수수 8/9~6/5단위
- ④ 고기 1단위당 옥수수 5/6~9/8단위
- ⑤ 고기 1단위당 옥수수 5/8~2/3단위